제 696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5년 5 월 15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5년도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행동지침
1. 이웃의 등대
2. 민족의 구원선
3. 세상의 나침반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느헤미야서 강해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 I

(느헤미야 4 장 1 - 23절)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서 일하는 그룹과 지키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16-18절). 그리고 불의의 습격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18-20절).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0절)고 했습니다.

위협 받을 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구력을 가지고 성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 신앙, 곧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해 일이 실패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반대가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는 어떤 일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가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성이 실제로 건축되고 있을 때 산발랏이 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실패했다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나 혹은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사람들은 왜 남의 성공을 반대하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지거나 권력 또는 특권이 침해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죄악 된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애굽, 바사, 아라비아, 소아시아로 가는 상업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을 쌓게 되면 그들 상인들은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로서는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가 잘 되면 기뻐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열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는 불협화음을 내고 심지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윤리적,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며 사람을 매장시킬 때도 실제 이유는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 데서 연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느 2:10).

산발랏과 도비야는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의 조력을 원치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사 왕에게 대적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느 2:19).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의심한 것입니다.

영적 사역을 할 경우 사단의 반대가 더욱 거센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단은 교회 성장과 평안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 같은 사단의 반대를 잘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대 사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2. 조소하면서 반대하는 경우

어떤 것을 반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웃는 것입니다. 산발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조소했습니다(1-3절). 그들은 조소함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비도덕적인 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2-3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면 곧 반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롱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같은 조롱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반발하거나 보복했다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쏟아 놓았습니다. 비록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3. 위협하면서 반대하는 경우

성을 쌓으면서 끝없는 일에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내적인 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동으로는 암몬 사람 도비야, 남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서로는 아스돗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며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요란하게 하고(8절),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11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이를 막아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들의 공격이 무서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편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이 알려졌을 때 느헤미야는,
①주야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9절).
②잠시 일을 쉬게 하고 백성을 무장시켰습니다(13, 15절).
③백성의 종족을 따라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13절).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무장 소식을 듣고 물러갔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들을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성 건축을 재개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저들의 위협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장 없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서 일하는 그룹과 지키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16-18절). 그리고 불의의 습격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18-20절).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0절)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 받을 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구력을 가지고 성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 신앙, 곧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홍해작전 준비시작되다

6월6일(월) ~ 6월25일(토) 새벽5시 본당에서

매년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홍해를 기도로 건너는 2005년 홍해작전이 6월6일 현충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시작된다.

북한의 핵문제 등 국가 안보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서울교회 예배당 헌당 등 수많은 기도제목이 우리 앞에 놓였다. 이 홍해를 기도로 건너는 금년 홍해작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

금년 **홍해작전 주제는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소서"(고후 1:3)**로 정해졌으며 6월6일(월)부터 6월25일(토)까지 계속되며 강사로는 이종윤 목사가 선다.

또한 금번 홍해작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승전하는 6월25일까지 모든 순서를 위해 각 부서를 책임질 참모와 위원들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다.

이번 홍해작정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 가정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결을 기도로 가르고 건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2005 홍해작전 기도제목>

1.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회개와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위하여

철저한 회개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 가정의 구원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3. 서울교회의 헌당과 비전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헌당하게 하시고,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 교회학교 일만 명 이상 출석, 사랑의 집 건립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4. vision 2020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지역복음화, 군선교, 민족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5. 조국의 평안과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해작전 조직>

· 사령관: 이종윤 목사 · 참모장: 김영준 장로

부서	참모	부관	위원
기획참모부	이복규 장로	오광환 집사	김영주 오유식 송인권 김금준 양춘경
행정참모부	홍성주 장로	서춘식 집사	김인수 김중근 최양진 최차순 김복승 최규초 조동완
예배참모부	박두영 장로	홍창배 집사	조철기 강석우 이광열 유기찬 이종형 김진환 김대응
찬양참모부	임상헌 장로	윤성남 집사	이제원 백수남 김형택 오승민 김명옥 김인숙 박윤혜 심화숙 허숙
동원참모부	김세재 장로	최광성 집사	장양일 최형열 임옥균 이태원 교구간사 교회학교부감 남선교회 여전도회임원
홍보참모부	전기섭 장로	김규태 집사	정동호 송인권 이양칠 김시환
봉사참모부	이관규 장로	오형철 집사	류중관 이계홍 이동만 이찬호 유을상 최광성 권사회임역원
안내참모부	조정식 장로	정동학 집사	이승우 김헌영 양인수 우상태 유근종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교단 총회로

-한기총, 교회협의회 실행위 통과-

2002년 서울교회가 발의하여 서울강남노회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새번역을 해달라는 헌의가 상정된 지 만 3년만에 주기도 · 사도신경 새번역안이 각 교단 총회에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월10일 한국교회협의회(KNCC)여성위원회의 대표들과 연구특위(이원장 이종윤 목사)가 회합을 갖는 자리에서 국어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성들이 제시한 하나님을 당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즉시 KNCC에 보고하여 각 교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기총에서는 이미 지난 1월에 각 교단에 통보한 바 있어 한국 기독교 역사 백여년만에 기적같이 이루어진 새번역이 각 교단 총회를 거쳐 사용케 된다.

한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서울교회는 지난 1월부터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같은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농어촌100교회운동 자매교회교역자 초청행사 은혜중에 마쳐

5월12일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농촌교회 목회자 45명이 우리교회를 방문, 이종윤 목사의 특강과 농촌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은혜중에 마쳤다.

2005 찬양대원 세미나 개최

2005년 찬양대원세미나가 5월20일(금) 오후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김명엽 장로(교수)가 선다. 찬양대원 및 찬양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명엽 장로

· 새문안교회 예본찬양대 지휘자
·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

2005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수료식 가져

2005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10주간의 학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시간이 수료식을 갖는다. 금번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에는 총 195명이 수강하여 수료를 하게 되었다.

제17학기 서울성경대학 수료자

사사기반 (41명)

고석규 곽미숙 김경미 김미경 김미성 김선희 김옥순 김유경 김진희 김해영 박미영 박분옥 박순복 박이선 박현영 배은희 백영란 백혜영 서경애 석상화 손현순 안경옥 안미경 여영태 유명석 이규효 이난화 이윤희 이해순 이현주 이혜경 전인숙 정복순 정희순 조순영 조응식 채경희 최경희 최봉희 최종희 최춘숙

에베소서반 (39명)

고옥자 권은주 김경래 김미경 김숙자 김연화 김영진 김옥순 김주현 김지희 노창훈 문옥희 박미영 박영숙 박진근 박찬미 서대식 송경옥 송미정 송은선 송은진 오혜경 유순근 이도훈 이봉선 이상은 이소명 이유진 이주현 이현정 이현주 이화용 임송자 정미연 정승용 정유연 조근아 주미영 허 숙

베드로전후서반 (36명)

곽선자 김선영 김숙자 김영주 김영희 김옥순 김완성 김용혁 김일순 김정순 김정희 김태봉 김혜숙 남태영 박경희 박두영 송은선 오세현 왕경래 원용범 은기장 이경구 이관규 이규희 이부자 이해순 이현주 임옥균 장양일 전행자 정경숙 정병무 정정숙 조동완 최요섭 황선희

고린도전서반 (24명)

곽선자 김옥순 김은태 김선영 김영주 김영희 김용혁 김은미 김일순 김혜숙 박경희 박두영 박분옥 송경옥 원용범 유영준 은기장 이경구 이은희 이해순 이현주 전행자 정병무 조정옥

교사양성반 (29명)

강성은 권오영 김경현 김미애 김상태 김성실 김영호 김옥순 김장섭 김정두 김지인 김춘호 김혜란 김희동 남경수 노현자 박성금 박영숙 박조현 서순희 오유식 이근형 이순복 채경희 최미현 최정인 최종희 최춘숙 홍순석

교구일꾼 양성반 (LTC) 수료자 (22명)

강낙훈 곽미숙 김길자 김미향 김일순 김해영 노명자 박영숙 박정임 송순옥 신규철 엄성웅 원희숙 이갑연 이선희 이원희 이은자 임명숙 정춘림 정희순 진교남 한상준

제9학기 서울주부대학 수료자 (2명)

박순복 안경옥

제10학기 실버 경로대학 수료자 (2명)

서수경 서창호

5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5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교회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세트를 드린다.

<4독>

김성임 집사(3교구)

<1독>

최차순 집사(4교구) 서영애 권사(5교구)
김정희 권사(5교구) 최원매 성도(13교구)

스승의 주일

작은 목자의 삶을...

안선영 성도(청년부)

얼마 전 TV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방영되었다. 일명 '일진회'로 알려진 탈선 청소년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혀를 찰만한 일들이었다. 일선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에게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말일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방영되었겠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선생님의 한마디에 웃고 우는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과 친구들의 별 재미없는 농담에도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희망에 찬 모습이다.

물론 가끔씩 아이들의 어두운 환경을 접하게 될 때도 있다. 늘 친구도 없이 소외되어 있는 이슬이, 뇌성마비로 얼굴이 어두운 근영이,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부모님을 따라 가고있는 은비, 부모님의 별거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준이 등등...특별히 우리 반에서 모범생 중 한명이었던 성준이는 늘 밝고 다정다감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부터인지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급기야는 모든 일에 무기력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지어 반항을 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다툼이 별거로 이어지면서 어린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듯 했다. 처음엔 나의 위로조차도 거부하던 성준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몇 차례의 만남을 시도한 후였다. 성준이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었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대할 때면 교실의 작은 목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느끼게 된다. 또한 일선 학교야말로 그 어느 곳보다 기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이한다. 온전해 보이는 아이들이든,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든, 이들 앞에 서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불충성하지 않았는지, 또 작은 목자의 삶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교사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사의 삶에 대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을 다짐해 본다.

스승의 주일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이화용 성도(청년부)

저는 서일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새내기 특수교사입니다. 제 첫 제자들은 민재, 성호, 규환이, 상호, 준호, 구현이 그리고 막내 지환이...이렇게 일곱 명입니다. 처음 민재를 만났을 때 새로 바뀐 낯선 선생님에게 적응하느라 매일 우리 반에 안내려오겠다고 울고 떼쓰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복도에서 저를 보면 그 큰 덩치로 멀리서부터 양팔을 벌리고 선생니임~하고 뛰어와 안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늘 내말을 잘 따라주고 갖은 애교로 힘든 학교생활에서 저에게 비타민C 같은 존재가 되어준 성호.. 성호가 없었으면 저는 학교에서 웃을 일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제 이름도 모르더니 드디어 겨울방학 직전에 제 이름을 외우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배시시 웃으며 내 이름을 말해주던 우리 반 얌전이 상호랑 아직 이름도 잘 못 쓰지만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잘 따르고 좋아해주는 우리 준호는 늘 저에게 힘이 됩니다.

노래를 안 시켜도 꼭 앞으로 나와서 부르는 우리 반 최고의 고집쟁이 구현이랑 아직도 제가 선생님인지 구별 못하고 엄마라고 부르며 떠오를 때마다 선생님 가슴 한편이 아파지게 하는 우리 막내 지환이. 처음 만났을 때 험한 소리도 많이 하고 공부를 시키면 거의 저를 때릴 기세였던 우리 규환이도 이제는 저에게 칭찬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저희 반은 이렇게 일곱 명입니다.

저는 어쩌면 아침마다 이 아이들 보기 위하여 학교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저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힘이 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램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씨를 뿌려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는 하늘나라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대기 좋아하고 늘 남의 도움만 받고 의지하려고만 하던 저인데... 남의 도움만 받던 저의 도움조차 필요한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난 두해동안 저는 제가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저를 사용하여 저보다 더 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심은 하나님의 그 크고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봅니다.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뒤쳐지고 늦게 따라오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비록 늦어도 이 아이들은 천천히 우리들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늘 새 힘과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점점 나아지도록 끊임 없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이런 스승이 되어주세요

유명희 집사 (1교구)

초록의 잎들은 바람과 비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푸르게 자라날 것이다. 뿌리는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 잎사귀 끝까지 골고루 나누어 주는 수고를 쉴 새 없이 계속할 터이다.

하나의 잎사귀가 자라기 위해서도 이렇게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아 자라나거늘 하물며 아이의 성장이야! 내게는 고1과 초등학교 6학년의 딸아이가 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주변은 글 읽는 장소를 따라 글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이사 온 가정이 많은 걸로 안다. 그만큼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5월은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계절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어버이로써 아이들이 바라는 선생님을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본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은 하나님 신앙을 가진 분이면 좋겠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아이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며 아이들마다 각각의 재능과 갈 길이 있음을 잘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점수 1, 2점에 울고 웃으며 죽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교육 때문에 이곳 대치동까지 온 부모들도 자녀의 죽음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아이들 개인의 특기를 파악하고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는 선생님이어서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고 열성을 다하는 선생님이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다 따스한 가슴을 지닌 성품이라면 더 좋으리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딪치는 고민과 어려움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생님이면 더 더욱 좋겠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은 성경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소명의식과 책임감과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이다.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넉넉함과 지혜가 이 땅에 넘쳐 참 스승과 제자가 많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며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은 아이와 어버이 스승이 하나가 되어 협조 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속담에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짐을 지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한다.

편지씁니다

자랑스 런 부 모 님께

김경철 성도(청년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머나먼 타국땅, 카자흐스탄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한국을 떠나신지도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직장과 세상일로부터 은퇴하시고 편안히 쉬시며 여생을 보내시면 좋으련만, 먼 나라로의 선교행을 선택하셨을 때 처음에는 무엇보다 고생하실 두 분 생각에 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아들이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지금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험한 고생길을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 계실 때 더욱 효도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부모님의 품 안을 떠나 객지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보고 싶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뵐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보니 절실히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아버지,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어머니,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먼 곳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실 부모님 덕분에 .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하실 7월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거의 2년 만에 뵙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주일성수도 잘 하지 못해 무보님께 걱정을 많이 끼쳤지만 이제는 이곳 서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착실한 크리스챤으로 지내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집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성경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무쪼록 몸 건강하시고 7월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예수 님을 만나 특 별한 삶을 삽니다

김미경 집사(13교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사람이 되듯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만나 평범했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변화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실한 모태신앙인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였고, 늦은 나이에 배우자의 신앙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결혼하여 불신앙 가정의 맏며느리, 외며느리로 살면서 거리낌 없이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첫 아이를 임신했고, 나의 임신 사실을 안 그 날부터 새벽마다 남편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미국 유학 시절부터 10여 년간 남편이 꽤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저는 아이 둘을 낳도록 나의 계획, 나의 의지만을 믿으며 키웠고 아이들에게 내 꿈까지 실어서 '작품'을 만들겠다는 세상적 욕심으로 이곳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 교문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가방 바꿔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는 습관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것은 마치 뿌리는 무시한 채 가지만 흔들고 있는 격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 급식당번을 하면서 알게 된, 지금은 자매처럼 지내는 루디아 여전도회원의 권유로 서울교회 주부대학을 수강하게 되었고, 제가 70인 전도대의 박집사님의 전도대상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분의 잔잔한 가운데 힘 있는 복음 제시에 이끌려 서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 집에 다니는 6살 짜리 둘째 아이가 우리 가정에 꼬마 전도사님 역할을 단단히 합니다. "아빠 우린 왜 교회에 안가요?" 아이의 이 한 마디로 남편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우리 가족은 모두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신 시아버님과 불교신자인 시어머님께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를 담아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기로 했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무척 당황하셨지만 순종만을 일삼던 며느리였기에 별 말씀 없이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로 우리 네 식구의 첫 번째 기도제목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랑의 집사'가 되라고 합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학부 모 와 함께하는 초 등 부

김광륭 집사 (초등부 부감)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면 연례행사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이 떠오른다.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려는 마음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어른 공경, 이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다.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기도하던 차에 학부모회에서 어린이 잔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연락이 담당교사를 통해 전해져 왔다.

어린이주일 행사를 놓고 고민하던 때라 반가운 일인데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해보겠다고 하니, 미안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2부 순서는 한티공원에서 이성득 지도목사님의 기도 후, 초등부 학부모들이 정성을 모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순대며 떡볶이,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어린이 잔치가 이어졌다.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참여하여 애써주신 학부모회 임원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교회학교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교회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교회학교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활짝 웃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잘 인도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일(월) 출국하여 하와이 국제신학대학원에서 Intensive course(집중강의)를 그리고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후 6월1일 귀국한다.
- 이사 : 이학명, 김경희 집사(5교구) 서초구 방배2동 T.3473-4559
- **주간 식당 봉사** : 마리아 여전도회(5월15일) 에스더여전도회(5월22일)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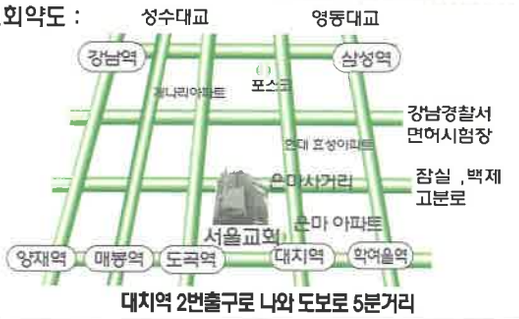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6월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05홍해작전에 은혜받고 승리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